

P116

2004년 호흡기바이러스 유행현황과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 치료효과

조경순, 나영란, 조현철, 한난숙, 최지영, 김성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은 Influenza virus, Adenovirus, Enterovirus, Parainfluenza 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의 다양한 바이러스감염이 원인이 된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포말에 의해 가장 잘 전파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접촉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유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4년 부산지역 병·의원 에 내원한 환자의 호흡기검체를 대상으로 세포배양과 RT-PCR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및 호흡기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호흡기 검체 1,869건 중 Influenza A/H3N2형 119건, Influenza B형 35건, Adenovirus 1형 3건, 3형 8건, 4형 1건, Parainfluenza 2형 1건, Echovirus 3형 1건, 6형 1건, 30형 1건, Coxsackievirus B1형 3건, B2형 4건, Poliovirus 5건으로 총 182건 (9.8%)이 분리되었다. Influenza는 2월부터 4월까지 분리율이 높았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는 7월과 8월에 높은 분리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에서 대부분 분리되었고 그 외 연령에서는 비슷한 발생분포를 보였다. 분리된 바이러스의 성별 분포는 Influenza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분리율을 보인 반면, 그 외 호흡기바이러스는 남녀 분리비 약 2:1로 남자에서 높은 분리율을 나타내었다. 호흡기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매우 빠르고 빈번한 변이가 일어나 백신의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Influenza 치료제 타미플루를 독감환자에게 사용하여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결과 발열기간을 줄이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내성주를 검출하기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원인 호흡기바이러스의 분리와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호흡기검체에서 장내바이러스가 다양하게 분리된 것에 대한 국내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